

“미래 에너지 대전환”...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청사진 확정

최종보고회 열어 지역 맞춤형 중장기 로드맵 발표
수소특화 국가산단·수소도시 조성 등 수소경제 선도



지난 3일 장세일 영광군수 주재로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수소산업 육성 청사진이 나왔다.

영광군은 최근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수소산업의 육성 전략과 실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and 수소도시 조성,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등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장기 발전 로드맵은 '2025년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기획'을 시작으로 추진단을 조직하고, 2035년까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2040년까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광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대마산업단지에 조성된 '그린수소 생산기술 성능시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기술개발 실증사업 유치 등을 통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지원사업 진행 모습.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3개 분야 공모 선정

1억 9000만원 확보 프로그램 운영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가 2025년 3개 분야 외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국가보훈부의 '보훈해봄' 공모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목포교육지원청의 관심군 학생 '온종일 케어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해봄' 사업은 청소년 대상 보훈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보훈 체험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 선정 '기후위기 생존일지' '지구-Log'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또 목포교육지원청의 '온종일 케어' 사업은 목포옥암중학교, 목포애향중학교, 목포제일중학교, 목포하당중학교와 협력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발달을 지원한다.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는 이와 함께 기능보강사업에도 선정돼 목포시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4월 하순부터 시설 운영을 재개해 청소년과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진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해남군 “공공일자리 참여하세요”...4개 분야 197명 모집

7~16일 접수·5월 19일 시작

해남군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및 중장년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5년 2차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미만, 주민등록세대 기준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군민이다.

모집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197명이다.

사업별로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 5명 ▲주요 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67명 ▲읍면 꽃 식재·관리 및 환경정비 9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7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 참여자의 근로기간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시급 1만30원, 근로 시간은 1일 4~6시간이며 유급휴가 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해남군 누리집의 고시공고 및 해남군 온라인 일자리지원센터, 해남군 소통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제공 ‘행복상담소’ 운영

767명 결혼이주여성 정착 돕기

해남군이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출신 여성들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한다.

행복상담소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다문화 통번역 공공일자리로 채용, 자국의 이주여성들에게 각종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게 된다.

자국민 안부 확인은 물론 각종 상담 등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상담 결과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결혼이주여성 나라별 비율에 맞추어 베트남 4명, 필리핀 1명, 중국 1명, 일본 1명을 선발해 사전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남군에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76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 중으로 베트남이 359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과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결혼을 통해 해남에 정착하고 있다.

행복상담소는 해남가족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한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



이주여성 통번역 상담 모습.

는 해남가족어울림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함께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돕고 있다.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한국어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문화공감 가족공감 성장캠프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초기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총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500만원의 행복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공유재산 실태 조사

누락된 46억원 재산 찾아내

완도군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서 누락된 재산 46억원을 찾아냈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진행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 3537건, 추정가액 46억원(공시지가 적용)의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불입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을 들여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 용역을 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유, 대부 면적 초과 등도 발견했다.

군은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향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군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26일 초의선사 탄생 239주년 문화제

‘초의차(茶)와 특별한 시간’ 주제

무안군이 오는 26일 초의선사 탄생 239주년을 기념해 삼향읍 초의선사탄생지 일원에서 제22회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개최한다.

초의선사는 조선 후기 첩체당 당시의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킨 선승(禪僧)으로, 근군이 명맥만 유지해오던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이다.

이번 문화제에는 '초의차와 함께 즐기는 세계 명차'라는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무안분청자기협회 작가가 제작한 찻잔이 기념품으로 제공돼 다양한 차를 시음해 볼 수 있다.

현대례를 시작으로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의 버스킹 공연과 퓨전국악 공연 등이 펼쳐지며, 초의차와 다양한 세계 명차를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 미술 놀이터, 열쇠고리 만들기, 향토음



초의선사 문화제 포스터.

수는 "이번 문화제는 초의선사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무릎 관절·안 질환 수술비 지원 호평

무릎 120만원·안질환 30만원 지원

진도군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무릎 인공관절과 안 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이 호평을 얻고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군민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당 120만원이 지원되며 안 질환 수술비는 한쪽당 30만원 한도로 1회만 지원한다.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급여 항목만 지원이 가능하다.

수술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신청서,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현재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와 안질환 수술비는 2400만원이 지원됐으며, 수술비를 지원받아 수술을 진행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비를 지원 받은 김 모씨는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수술을 미루다가 진도군의 지원을 받아 안 질환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암군 남풍리에 ‘전남형 만원주택’ 50호 건립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150억 확보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50호 규모 '전남형 만원주택'이 들어선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인구 유출 방지, 안정적 정착 등을 지원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신혼부부, 60㎡ 이하 청년을 위한 살 집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 임대료로 최장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

영암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부지를 확보, 최종 공모 선정을 일궈냈다.

선정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에서 도비 150억원으로 영암읍 남풍리에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하고 운영·관리한다.

영암군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력해 공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LH와 협약을 맺고 청년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지역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주거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택 건립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통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해양치유센터-광주 송정역 시외버스 운행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광주 송정역을 경유하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시외버스 노선 운행은 금호고속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버스 노선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 광주 송정역,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해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오전 9시 10분(송정역 경유 9시30분)에 출발,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는 오후 5시 10분(해양치유센터 경유 오후 5시30분)에 출발한다.

버스 요금은 광주버스터미널-완도해양치유센터 구간 1만8900원, 송정역-완도해양치유센터 구간은 1만7400원으로 책정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